

訥齋 朴祥 賦文學 연구

— 주제 형상화 방식을 중심으로 —

김 진 경 *

<目次>

- | | |
|------------------------|--------------------|
| I. 서론 | 2. 작품을 통한 구체적 적용양상 |
| II. 訥齋 賦작품 概觀 | 검토 |
| III. 訥齋 賦작품의 주제 형상화 방식 | IV. 訥齋 賦작품의 의미 |
| 1. 주제 형상화를 위한 주된 서술방식 | |

<국문 초록>

訥齋 朴祥(1474-1530)은 높은 수준의 문학적 성취로 인해 후인들에게 호남 시단의 祖宗으로 칭송을 받는 인물이다. 訥齋가 남긴 賦작품은 모두 12편이고, 내용과 형식 모두 다양하다. 訥齋는 기록치 않았던 그의 삶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心懷를 다양한 체제의 賦작품 속에 오롯이 담아내었다. 그러므로 訥齋의 賦작품을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은 그의 정인지향과 문학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서술방식으로 작품 속에 형성되는지에 주목하여 訥齋의 賦작품이 지니는 문학성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연구 방법은 訥齋 朴祥의 心懷가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究明하는 데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賦가 지닌 문학성을 개별 작품을

* 고려대학교 한자한문연구소 연구교수 / yeshanmoon@hanmail.net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訥齋가 賦작품 속에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술 방식은 抒情的 표현, 敘事的 구조, 議論的 전개, 寓言의 運用 등이다. 그리고 한 작품에 한 가지 방식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일수록 한 작품 내에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안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듯 訥齋의 賦작품은 다양한 서술방식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시대를 불문하고 다른 문인들의 賦 작품들보다 작품의 성취도의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인다. 이것은 訥齋가 지닌 뛰어난 문학적 역량에 기인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訥齋 賦작품이 15-16세기 賦문학 전개과정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15-16세기에 창작된 賦작품들은 訥齋의 작품처럼 형식과 내용 모두 다양하다. 특히 주제의 측면에서 현실모순에 대한 고발과 풍자, 지배층 내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개인의 慷慨·鬱憤 등의 정조, 일상에서의 哀悼의 情恨, 道家的 超越과 遊仙의 追求 등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다채로운 양상을 띤다. 訥齋 賦작품은 그가 생존했던 시기의 이러한 賦 창작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訥齋 賦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는 그러한 창작경향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訥齋 朴祥, 賦문학, 서술방식, 抒情的 표현, 敘事的 구조, 議論的 전개, 寓言의 運用

I. 서론

訥齋 朴祥(1474-1530)은 그가 삶 속에서 실천한 義理 정신과 높은 수준의 문학적 성취로 인해 후인들의 칭송을 받는 인물이다. 그의 義理 정신은 무엇보다 愼氏復位上疏를 주도했던 사실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¹⁾

1) 이 외에 1506년(연산군12), 全羅都事를 지낼 때 연산군 嬖人의 부친인 牛夫里의 부조리함을 논죄하여 그를 杖殺한 사건 등에서 그의 실천적 의리 정신을 엿볼 수 있다.

뛰어난 문학적 성취는 正祖와 諸賢들의 높은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正祖는 우리나라 시 가운데 朴祥의 것을 으뜸으로 꼽았으며,²⁾ 우리나라 역대 詩學에 대해 논평하면서 挹翠軒 朴間(1479-1504) 시의 ‘天成’과 訥齋 朴祥 시의 ‘沈鬱’함은 쉽게 도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고 하였다.³⁾ 許筠(1569-1618)은 『惺叟詩話』에서 조선시대의 시는 中宗 때에 와서 크게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朴祥·申光漢(1484-1555)·金淨(1486-1520)·鄭士龍(1491-1570) 등을 이 시대의 대표적 시인으로 꼽았다.⁴⁾ 訥齋의 아우인 六峰 朴祐(1476-1546)는 『詩經』과 『離騷』, 李白과 杜甫의 시에 깊은 이해를 가진 사람이 아니면 訥齋의 시를 알기 어렵다⁵⁾고 그 수준을 높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평가들을 통해 訥齋가 문학적으로 남긴 뛰어난 성취를 확인할 수 있고,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후인들은 訥齋를 호남시단의 祖宗으로 칭송하는 것이다.

訥齋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주로 그의 義理 정신과 시문학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평생 동안의 저술은 천여 편에 달하고, 거기에는 온갖 문체가 갖추어져 있다.”⁶⁾는 朴祐의 언급처럼 『訥齋集』을 검토해 보면 천 편이 넘는 詩와 함께 賦, 序, 記, 祭文, 跋, 疏 등 다양한 문체의 작

-
- 2) 『弘齋全書』 卷162, 「日得錄」 2 문학2, “我東詩律, 多數石洲東岳翠軒簡易, 而簡易文勝, 翠軒往往甚高着, 然亦有些欠處, 東岳半是酬唱調, 石洲太軟媚, 獨朴訥齋兼有諸能, 當爲第一耳.”;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4 문학4, “朴訥齋詩, 後人無稱道者, 而嘗見其遺集, 奇傑迥麗, 儘是東詩中第一家數”, “近見朴訥齋詩, 人力到底處, 可與翠軒伯仲, 非中世諸詩人所可跂及. 如‘帝魄秋枝款款廣’句, 何等神爽, 何等爐錘. 予於訥齋, 別有曠感者存, 今讀其詩, 如見其人.”
- 3) 『弘齋全書』 卷164, 「日得錄」 4, 문학4, “我東詩學, 世不乏人, 而挹翠軒朴間之天成, 訥齋朴祥之沈鬱, 皆盛世風雅之遺, 非後來擅名詞垣者之比也. 兩集遂命刊印以進.”
- 4) 許筠, 『惺所覆瓿稿』(『韓國文集叢刊』 74를 텍스트로 삼았다.) 卷25, 「惺叟詩話」, p.362, “我朝詩, 至中廟朝大成, 以容齋相倡始, 而朴訥齋祥申企齋光漢金冲庵淨鄭湖陰士龍, 竝生一世, 炳烺鏗鏘, 足稱千古也.”
- 5) 朴祐, 『訥齋集』(『韓國文集叢刊』 18을 텍스트로 삼았다.), 「訥齋先生集序」, p.464, “非深於風雅騷李杜者, 則難能會訥齋之詩矣.”
- 6) 朴祐, 『訥齋集』, 「訥齋先生集序」, p.464, “平生著述, 殆千百餘篇, 衆體兼備.”

품을 남기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비록 직무가 많더라도 날마다 『離騷』를 한 번씩 읽지 않고서는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⁷⁾는 기록을 통해서 訥齋가 楚辭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은 그의 賦작품과 한시 창작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訥齋가 남긴 賦작품은 모두 12편이고,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다양성을 확인할 수 있다. 내용적 측면의 다양성은 형상화된 주제의 양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訥齋는 녹록치 않았던 그의 삶 속에서 형성된 개인의 진정한 心懷를 賦작품 속에 오롯이 담아내고 있다. 아울러 형식적으로는 騷體賦의 형식, 四六言의 형식, 騷體賦와 四六言의 混融 등 다양한 체제의 賦작품을 창작하였다. 그러므로 訥齋의 賦작품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는 작업은 그의 정신지향과 문학세계를 온전히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중요한 한 축이 될 것이다. 訥齋 賦작품만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최초의 연구는 형식과 내용을 양분하여 작품을 분석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⁸⁾ 그 후에 이루어진 두 편의 연구에서는 주제적 접근을 통해 작자의 의식을 조명하는 데 주력하였다.⁹⁾

이에 본 연구는 작품을 통해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어떤 서술방식으로 형성되어 나타나는지에 주목하여 訥齋의 賦작품이 지니는 문학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한 작품의 主題가 어떤 표현 방식과 전개 방법을 통해 최종적으로 구체화되는가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형식, 또는 내용 그 어느 한 측면에만 치우쳐 행해진 연구¹⁰⁾보다는

7) 李濟臣, 『清江先生鯁鯖瑣語』, 『清江先生詩話』, “朴訥齋雖當劇官, 夜必誦離騷一遍, 作近律一首, 然後就寢云.”

8) 金銀洙, 『訥齋 賦文學의 研究』, 『訥齋 朴祥의 文學과 義理 精神』, 광주직할시, 1993, pp.117-143.

9) 신태영, 『訥齋 朴祥의 賦 研究-유가적 충의와 장자적 초탈』, 『온지논총』 17집, 온지학회, 2007, pp.205-235.; 김동하, 『訥齋 朴祥의 賦 研究』, 『古詩歌研究』 2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pp.83-113.

10) 기존의 연구에서 형식적인 특성을 검토하는 경우는 楚辭의 형식과 단순히 句法만을 비교하여 그 형식상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 대부분인데, 이러한

이러한 연구 방법이 訥齋 朴祥의 정신적 지향이 문학 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究明하는 데에 도움이 됨과 동시에 賦가 지닌 문학성을 작품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해서 訥齋 賦작품이 朝鮮前期 賦문학 전개과정에서 지니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訥齋 賦작품 概觀

訥齋가 창작한 12편의 賦작품을 주제, 題材, 서술방식, 體制를 중심으로 概觀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여기에서 서술방식은 訥齋가 작품 속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한 논지 전개의 방법이고, 체제는 작품 전체의 형식적인 측면이다.

徐師曾은 『文體明辯』에서 賦를 ‘古賦’, ‘俳賦’, ‘律賦’, ‘文賦’의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그 특징을 설명하였는데, 賦작품을 실제로 분류함에 있어서 이러한 유형별 기준이 절대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곧 두 가지 유형이 혼용된 작품들이 있으니 그 한 예로 古賦¹¹⁾이면서 文賦¹²⁾

접근으로는 賦의 문학성을 온전히 검증하기 어렵다. 주제에 따른 내용 분류를 통해 작가의 의식을 조명해 보는 작가론적 방법의 경우는 賦라는 장르가 지니는 체제, 형식, 수사적 특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해 다른 장르와 변별되는 시각에서의 작품 이해가 어렵다는 한계를 지닌다.

- 11) 古賦는 주로 漢代에 창작된 작품들을 일컫는 것으로 구성은 보통 긴 편폭에 序頭, 本文, 終結의 三段으로 되어 있으며, 直敘보다는 問答體 형식을 많이 활용한다. 그리고 이것은 體制면에서 다시 騷體賦와 散體賦(漢大賦), 그리고 小賦로 나뉜다. 騷體賦는 楚辭를 모방하면서 賦라는 이름을 붙인 것이고, 散體賦는 편폭이 길고 규모가 크며 問答을 가설하고 韻文·散文을 섞었으며 散文의 맛이 농후한 賦이다. 小賦는 전편에 押韻을 한 韻文으로 4언을 위주로 하면서 3언·6언·7언을 섞어 사용한다.(陳必祥지음·沈慶昊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pp.347-351. 참조)
- 12) 文賦는 宋의 歐陽修 이후 古文運動의 영향을 받아 출현한 유형으로 고문에

的인 성격을 띠는 작품들이 있다. 訥齋의 賦작품에서도 그러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題目	主題	題材	敘述方式	體制
黃鍾賦	儒家의 道가 變질된 世態에 대한 개탄	黃鐘	敘事	騷體賦
登泰山小天下賦	浩然한 기상과 포부	『孟子』의 ‘孔子登泰山而小天下’	議論 敘事	騷體賦
擬自悼賦	부당한 현실의 모순에 대한 鬱憤과 불우한 삶에 대한 自歎	가족들과의 死別	抒情 敘事	騷體賦
夢遊	春秋大義에 입각한 역사관과 莊子의 사유에 기반한 초월의식	어느 눈 내리는 날의 꿈 이야기	敘事 抒情 議論	騷體賦
五絃琴	舜의 시대와 같은 이상적인 정치 실현에 대한 염원	五絃琴	敘事 抒情	六言
弔五王	역사회고를 통한 春秋大義의 천명	唐의 功臣인 桓彥範, 敬暉, 崔元暉, 張東之, 袁恕己	敘事 議論	騷體賦
平倭	왜구를 평정한 것에 대한 환희와 앞으로의 보다 공고한 방비의 촉구	왜구의 침공을 격퇴한 일	敘事	混融
哀大鳥	大鳥의 비참한 삶에 가탁한 자신의 고달픈 삶에 대한 自慰	大鳥	寓言 敘事 議論	四六言

근접하여 더욱 산문에 가까운 작품이다. 당시 古文의 章法과 氣勢를 흡수하여, 구식은 4언·6언을 위주로 하면서 長句를 대량으로 섞어서 연결사 이외에도 ‘之·乎·者·也’ 따위의 虛辭를 사용한다. 用韻은 비교적 자유롭고, 보통 문답형식을 취하며, 敘事·寫景 중에 議論·說理를 담아내는 경우가 많다.(陳必祥지음·沈慶昊 옮김, 위의 책, pp.358-365.참조)

題目	主題	題材	敘述方式	體制
石鼓	석고의 내력을 통해 유가의 治世論 천명	石鼓	敘事	混融
爲善最樂	儒道の 천명과 修身에 의 의지	儒家의 道	議論	混融
海棠	해당화의 속성을 통해 밝힌 訥齋 자신의 處世 방법	해당화	寓言 抒情 敘事	四六言
聞杜鵑	두견에 얽힌 역사적 사건들을 통한 자신의 처지에 대한 哀傷	두견의 울음	抒情 寓言	混融

Ⅲ. 訥齋 賦작품의 주제 형상화 방식

1. 주제 형상화를 위한 주된 서술방식

訥齋가 賦작품 속에 주제를 형상화하기 위해 주요하게 사용하고 있는 서술방식은 크게 抒情的 표현, 敘事的 구조, 議論的 전개, 寓言의 運用 등 네 가지 방식이다. 그리고 한 작품에 한 가지 방식만을 활용하기 보다는 이 네 가지 요소를 혼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문학성이 뛰어난 작품일수록 한 작품 내에 서로 다른 요소들이 조화롭게 안배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 抒情적 표현

‘抒情적 표현’이란 작자의 주관적인 ‘정서’, ‘느낌’이 정서표출을 위주로 한 언어들로 구사된 것으로, 이럴 경우 개성이 강조되고 매우 주관적인

감상을 수반하기 마련이다. 이러한 주관적인 감정으로 읽는 이들의 공감을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지나친 과장보다는 진정성을 담아내는 데 힘을 쓰고, 제재는 작자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일들과 경물에서 취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 외에 가상의 세계, 역사 속의 사건이나 인물을 통해 작자의 정회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도 한다.

賦는 그 양식의 특징이抒情보다는 대상에 대한鋪陳이 주가 되기 때문에 서정성과는 거리가 있다고 인식하여 왔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작품을 살펴보면 賦작품 가운데도 개인의 순수한 정회를 서정적인 표현을 통해 표출하는 작품이 있다.

司馬遷은 「屈原賈生列傳」에서 굴원이 「離騷」를 창작한 계기가 正道가 행해지지 않는 世態에 대한 鬱憤에서 기인했다고 하였다.¹³⁾ 正道가 행해지지 않는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의 참소로 인해 임금에게 쫓겨난 굴원은 문학작품을 통해 세대에 대한 울분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슬픔을 토로한 것이다. 그러므로 그의 작품을 살펴보면 鬱憤과 悲哀가 주된 정서가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楚辭를 賦의 전범으로 여겼던 우리나라 문인들의 작품의 주된 정서도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¹⁴⁾

悲哀와 鬱憤의 감정은 한 개인의 경험과 객관적인 현상에 대한 주체의 내면 의식과 긴밀하게 연관된 것이므로 이러한 정서를 담고 있는 작품들은抒情적인 성격을 띠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특히 訥齋의 悲哀와 鬱憤의 情緒에 기반한 작품의 주제가 서정적 표현을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13) 司馬遷, 『史記』卷84, 「屈原賈生列傳」, “屈平疾王聽之不聰也, 讒諂之蔽明也, 邪曲之害公也, 方正之不容也, 故憂愁幽思而作離騷.”

14) 尹柱峴 「楚辭收容의 문학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 의식」, 『한국한문학연구』 9·10, 한국한문학회, 1987.)은 우리나라 한문학에서의 楚辭 수용의 방향을 ‘忠憤之辭’와 ‘慷慨之辭’로 나누어 논하였는데, 특히 후자의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2) 敘事적 구조

‘敘事적 구조’는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적인 사건의 전개에 맞추어 형상화해 나가는 것이다. 곧 사건에 대한 서술을 통해 작자의 사상과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뜻을 사실 그 자체나 사건의 전개를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이므로 고도의 서사 기교를 갖추지 않으면 무미건조한 글이 되기 쉽다. 그래서 서사의 과정 속에 서정을 섞어 보다 효과적으로 주제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고, 주요한 사건과 관련 있는 이야기를 중간 중간에 삽입하기도 한다.

訥齋가 생존했던 시기의 賦작품에 보이는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夢遊의 서사 구조를 활용하여 道家的 사유를 담은 내용이 많다는 것이다.¹⁵⁾ 이 시기에 이러한 성향의 작품들이 집중적으로 창작된 것은 무엇보다 士禍 등으로 인한 정치 사회의 혼란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곧 賦의 창작 주체는 사대부들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정치 사회의 혼란이 賦의 내용에까지 변화를 가져오게 한 것이다. 政爭의 상황에서 失志한 사대부들은 절망적인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 나름의 또 다른 이상향을 꿈꾸거나 우울한 情懷를 토로할 방법이 필요하였던 것이다. 이에 性理學 이념이 지배적이었던 이 시기에 道家的 思惟가 농후한 賦작품의 창작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이것은 당면한 현실에서 자신의 한계를 道家的 사유를 통해 극복해 보고자 했던 것으로, 현실의 한계와 갈등이 심화될수록 그러한 극복 의지가 더욱 환상적으로 표출되었다.¹⁶⁾

이러한 작품들¹⁷⁾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대부분 ‘夢遊’의 서사 구조를

-
- 15) 고려시대와 17세기 후반 이후에 창작된 작품 가운데에는 이러한 성격의 賦가 드물다.
 16) 그러나 이들 작품의 대부분은 허무적이거나 염세적인 내용을 강조하기보다는 超世的인 無爲의 세계에 들어가 절대적인 경지에 逍遙遊하는 老莊의 세계관을 회고하고 있다.
 17) 여기에 해당하는 작품으로는 兪好仁의 「夢遊靑鶴洞辭」, 蔡壽의 「獨鶴賦」, 南孝溫의 「大椿賦」·「藥壺賦」·「哀人生賦」·「得至樂賦」, 朴祥의 「夢遊」, 沈

활용한다. 대부분의 작품이 俗塵을 벗어나 仙境에서 노닐며 仙人에게 자신의 의문에 대해 자문을 구하고 고뇌를 토로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진다. 이들 작품에서 그려지는 仙界는 매우 구체적이고 화려한데, 道家的 傳說과 神話를 다양하게 인용하고, 과장법을 주로 사용하며, 가공의 인물과의 議論的 대화를 통해 도가적 이치를 밝히고 주제를 전달한다. 이러한 계열의 작품들은 이 시기 사대부들의 道家的 소양의 수준과 政爭 속에서의 지식인의 의식지향의 일단을 보여준다는 데에 의미를 지닌다.

訥齋의 賦작품 가운데에도 이러한 夢遊의 서사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것들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訥齋 賦작품의 서사적 구조에 대해서는 특히 당대 이러한 賦 창작경향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3) 議論적 전개

‘議論적 전개’의 서술방식은 작자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이론·사상·관점을 논리 전개에 충실하여 논설문의 어조로 표현하는 것이다. 理性的·論理的인 사고를 운용하여 의론의 전개방식을 위주로 한다는 점에서 감정 표현에 주력하는 서정적인 서술방식과 변별되며, 鋪陳의 기법으로 대상을 그대로 묘사하거나 사건을 서술하는 데 치중하는 서사적인 서술방식과도 다르다. 의론의 서술방법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글의 기세이고, 기세는 언어와 매우 밀접한 관계에 있다. 언어의 기세와 리듬감을 살리기 위하여 긴 구절과 짧은 구절, 對偶를 역동적으로 운용하는데 의론적 전개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수사방법은 問答이다.

訥齋의 賦작품 중 「夢遊」, 「哀大鳥」, 「登泰山小天下賦」, 「弔五王」, 「爲善最樂」 등에서 議論적 서술방식이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義의 「廣寒殿賦」·「蟠桃賦」·「大觀賦」, 成倪의 「石假山賦」·「遊三日浦賦」·「涸轍鮒賦」·「萬景臺觀海濤賦」·「華表柱賦」, 申光漢의 「病鶴賦」, 李苻의 「登瀛洲」, 李珣의 「空中樓閣賦」·「遊伽倻山賦」, 許筠의 「夢歸賦」·「夢遊練光亭賦」·「毀壁辭」, 趙希逸의 「瑤池宴賦」 등을 꼽을 수 있다.

4) 寓言의 運用

서정, 서사, 의론의 서술방식 이외에 賦작품의 문학성을 살리면서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으로 寓言의 運用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의 우언에 대한 이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修辭的 의미의 假託的 형상화 기법으로 이해하는 경우¹⁸⁾와 양식으로서의 이해¹⁹⁾가 그것이다. 본고에서는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여 寓言에 대한 정의를 ‘작자가 자신의 뜻을 제시하고자 할 때 主題 전달상의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 꾸며내는 이야기 전개 방식’이라고 규정한다.

寓言을 운용하는 작품들은 대상이 되는 題材의 행위와 속성을 통해 작자의 理想的인 人間觀과 處世觀, 그리고 世態에 대한 諷刺 등을 假託한다. 특히 동물을 제재로 한 작품들은 寓言의 본질적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故事의 줄거리와 比喻의 寄託性을 모두 띠고 있는 것이 많다.²⁰⁾ 그 내용은 주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것으로, 부당하고 부조리한 세대에 대한 작자 자신의 입장 표명이나 비판인데, 이러한 내용은 대부분 諷刺的이고 敎訓的인 성격을 띤다.²¹⁾ 寓言에는 寄託을 위한 虛構的 장치가

-
- 18) 修辭的 기법의 일종으로 파악하는 경우는 그것이 比喻하고 있는 寓意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安秉高, 「先秦寓言의 特質」, 『語文學』 3, 국민대학교 語文學研究所, 1984, pp.487-505.; 尹海玉, 『朝鮮時代 寓言 寓話小說 研究』, 박이정, 1997. 등의 연구가 있다.
- 19) 단순히 수사적 형상화 원리가 아니라 그 같은 원리를 이용하여 제작한 이야기로 이해하는 것으로, 우언을 하나의 양식으로 인정하여 그 양식상의 원리와 특성을 탐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와 관련하여 윤주필외,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집문당, 2004.; 양승민, 「寓言의 서술방식과 소통적 의미」,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등의 연구가 있다.
- 20) 陳蒲淸 著·오수형 譯, 『중국의 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p.14. 참조. 우언은 故事의 줄거리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比喻와 구분되고, 比喻의 寄託性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일반 故事와도 구분된다.
- 21) 윤승준(『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月印, 1999, pp.40-41.)은 우언은 이야기를 통해 기탁되는 寓意에 초점을 맞추는 표현 방식으로, 인간 현실에 대한 道德的 敎訓이나 社會的 諷刺, 혹은 哲學的 省察과 說理를 지향한다고 하였다.

동원되며, 象徵과 擬人化 그리고 比喻가 修辭的 용도로 활용된다. 일반적으로 寓言이라고 하면 그 적용대상을 서사성이 짙은 문학 작품들로 한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서정적인 성격이 강한 작품들 가운데 우언을 운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寓言을 활용하는 賦작품도 題材를 통해 작자가 否定的으로 간주하는 인물 또는 理想的으로 생각하는 人間像을 寄託한다. 諷刺의 對象이 되는 否定的인 인물은 주로 탐욕스런 속성과 행태를 보이는 부류이고, 반면 理想的인 人間像으로 제시되는 대상은 주로 고고한 자태를 지니고 無慾의 삶을 추구하거나 직분에 충실한 부류이다.

賦작품에서 우언을 운용하는 경우 敘事와 議論의 서술방식을 혼용하고, 세밀하고 생동적인 묘사, 논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적절한 故事의 인용,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敷衍, 擬人化, 比喻 등의 修辭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다.

본고에서 寓言의 運用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 과정에서 활용되는 修辭法을 통해 訥齋 賦작품의 문학성을 검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野談, 說, 傳, 寓話小說 등 지금까지 우언과 관련하여 거론되었던 양식 외에 賦작품에도 寓言의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2. 작품을 통한 구체적 적용양상 검토

1) 「擬自悼賦」 - 抒情적 표현과 敘事적 구조

「擬自悼賦」는 訥齋가 33세 되던 해에 아내를 여윈 것을 계기로 부친, 형, 자녀와 사별한 일을 한 데 아울러서 애통해하고 자신의 불우한 삶에 대해 답답한 심사를 토로한 작품이다.²²⁾ 작품에는 다음과 같은 序가 있다.

22) 이 작품과 「聞杜鵑」은 즐고, 「韓國 辭賦에 나타나는 悲哀의 情緒-조선시대 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동방한문학』 30, 동방한문학회, 2006, pp.339-369.)에서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가능하면 제외하려고 하였으나 訥齋 賦문학의 정수로 꼽을 수 있는 작품들이기 때문

옛날 반첩여는 자신을 애도하는 賦를 지었다. 반첩여는 재앙이 포대기에 싸인 그의 아기에까지 미치지 그의 悲感을 가을 부채로 나타냈으니 自悼한 것 가운데 가장 절실한 예가 된다. 그러나 나의 경우는 반첩여에 비한다면 더욱 참혹하다. 나는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형한테서 글을 배웠는데 형이 또 세상을 떠났다. 癸亥(1503)년 겨울에 딸아이가 죽었고, 지난해 여름에 딸과 아들이 죽었고, 겨울에는 또 아내가 죽었다. 아아! 戊申(1488)년부터 丙寅(1506)년까지는 24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이토록 화가 여섯 차례나 닥쳐오는 혹독함을 당했다. 비록 수명의 장단은 타고난 분수가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저지른 잘못으로 초래한 것은 아닐까 두려웠다. 그래서 스스로 반성해 보았으나 그럴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었다. 감회를 펼쳐 부를 지어 반첩여의 뒤에 붙인다.²³⁾

「自悼賦」는 漢 成帝의 총애를 받다가 趙飛燕 자매의 등장으로 인해 失寵하고 그 아들마저 희생을 당한 班婕妤가 자신의 불운한 삶을 슬퍼하며 지은 작품이다. 계속되는 불행의 원인조차 도저히 헤아릴 수 없는 鬱鬱한 처지의 訥齋는 자신의 불운한 삶을 반첩여의 그것보다 더 참혹하다고 여기며 「自悼賦」를 모의하여 賦를 지어서 親屬과의 死別로 인한 비통함과 자신의 처지에 대한 鬱憤을 담아내고자 한 것이다.

여러 가지 헤어짐 중에서도 인간을 가장 괴롭게 하는 것은 뜻밖의 죽음으로 인한 이별일 것이다. 이승에서의 이별은 막연하게나마 다시 만날 때를 기대할 수 있지만 죽음은 이승과 저승 사이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장벽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까운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격발된 비통의 감정은 개인이 주체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통해 그 괴로움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다.

에 부득이하게 다시 검토하게 되었다. 기존의 논의를 토대로 하되 본 연구의 방향에 맞게 부분적으로 수정·보완하였음을 밝힌다.

23) 朴祥, 『訥齋集』 卷1, 「擬自悼賦」, p.467, “昔班婕妤賦自悼, 蓋班災聯嬰襪, 感弘秋扇, 其爲悼最. 然予比班又慘焉. 余早失怙, 學於兄, 兄又逝. 及癸亥冬, 哭女, 往年夏, 哭女與男, 冬又哭妻. 噫, 自戊申至丙寅, 歲未再周, 而茲禍及六之酷, 雖曰脩短有分劑, 猶恐已作之召, 而自反不獲. 敘懷著賦, 配班之後.”

다음은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의 비통한 심정을 토로한 대목이다.

29년은 정말 눈 깜짝할 사이 같으니, 버려둔 옥고리와 패물은 마치 남겨둔 것 같네. 아내가 저승길 떠나간 것 날로 아득해짐이 슬프니, 외쳐도 듣지 못하고 손으로 불러도 알지 못한다네. 비록 친지가 장구하다고 하지만, 다시 만날 날 언젠가 될지 가슴 아프구나. 내 마음의 쓰라림 고통스러우니, 한없는 슬픈 마음을 품고 살아가네. 남겨진 어린 자식들 무릎 위에 앉혀 끌어안으니, 눈물이 줄 줄 턱에 흐르네. 안방 킁킁한데 먼지 쌓여가고, 바람은 은근하게 창문을 흔드네. 비단살창 열어놓고 탄식하니, 그대의 목소리와 얼굴 아득하여 마주할 수가 없구나. 정원의 매화에 봄비 맺혀 있는 것, 그대의 혼이 깃든 듯하네. 때는 어둡고 어스레하여, 해는 잠깐 사이 서쪽으로 사라지네. 내 마음 끊어올라 볼 지핀 것 같으니, 아내 잃은 潘岳의 근심스럽고 답답한 마음처럼 참담하구나.²⁴⁾

29년을 함께 해온 아내가 이승에서는 다시 만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 버린 상황에 대한 슬픔과 두려움을 진솔하게 표현하였다. 작자는 아내가 남기고 간 옥고리와 패물을 통해 아내를 떠올리며 그 죽음을 사실로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러나 결국 날이 갈수록 죽은 아내와 살아있는 자신과의 거리가 점점 더 멀어져 ‘애타게 소리쳐 불러도[號]’ 듣지 못하고 ‘손짓하여 불러도[招]’ 알지 못하게 될 것임을 깨닫고 안타까워했으나, ‘號’와 ‘招’로 표현된 처절한 부르짖음을 통해 죽은 아내에 대한 그리움을 형상화하였다. 아울러 다시는 만날 기약을 할 수 없는 현실에 대한 슬픔과 어미 없이 자랄 남겨진 자식들에 대한 연민을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남겨진 어린 자식들 무릎 위에 앉혀 끌어안으니, 눈물이 줄 줄 턱에 흐른다.’는 솔직하고 강렬한 표현을 사용하여 읽는 사람의 공감을 이끌어낸다. 이어 이러한 직접적인 슬픔의 토로는 잠시 거두고 주위

24) 朴祥, 『訥齋集』卷1, 「擬自悼賦」, p.467, “廿九年眞一瞥兮, 委環佩其若遺. 悼幽蹤之日遯兮, 號無聞而招不知. 雖圓厚之久長兮, 痛更覲之何時. 疚余中之酸楚兮, 銜袞袞之情悲. 抱遺雛於膝上兮, 淚浪浪其交頤. 洞房黝昧以塵凝兮, 風徐徐以振帷幄. 闌綺疏以喟息兮, 邈聲容之不可接. 逗春雨於園梅兮, 存精神之彷彿. 時曖曖其曠擘兮, 曜靈俄而西沒. 情涓沸以若炊兮, 慘潘懷之恫鬱.”

의 경물을 통해 자신의 슬픔을 전달한다. 이젠 먼지만 쌓여가는 어두운 안방, 바람에 은근히 흔들리는 창문, 어스레하게 서쪽으로 사라지는 태양 등은 적막과 소멸을 상징하는 것으로 작자의 쓸쓸하고 어두운 심정을 투영하고 있는 대상이다. 이러한 적막함 속에 작자는 정원에 피어있는 봄비 맺힌 매화를 통해 다시 아내를 떠올리고, 더 이상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없고 얼굴을 볼 수 없는 현실을 한탄하였다. 그리고 자신의 참담한 심정을 아내를 잃고 悼亡詩를 지었던 潘岳의 심정에 빗대어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이어 어려서 아버지를 여읜 것을 비롯하여 師父처럼 믿고 따르던 형님의 죽음, 어린 자식들의 죽음, 그리고 아내의 죽음까지 6차례에 걸쳐 자신이 겪은 참혹한 일들을 ‘하늘은 왜 나로 하여금 ~을 겪게 하였는가?’라는 원망스런 표현을 반복적으로 구사하며 차례대로 열거하고 있다. 그리고 각각의 경우에 대해 슬픔과 원망을 토로할 때마다 자신과는 달리 義理와 正道를 지키지 않아도 오히려 당당하게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무리들에 대해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면서 공정하지 않은 현실에 대한 울분을 쏟아 낸다. 자신이 처한 현실에서는 ‘선한 사람은 복을 받고 악한 사람은 화를 입게 된다.’는 것은 진리가 아니라 거짓에 불과하고, 저 하늘조차도 진정 공정한 것인지 도대체 믿을 수가 없다는 것이다.²⁵⁾ 여기에 이르러서 訥齋는 격한 어조로 부당한 현실 모순에 대한 울분을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타고난 자신의 본성과 부형으

25) 朴祥, 『訥齋集』 卷1, 「擬自悼賦」, p.467, “噫, 福善禍淫, 理又玄玄. 彼何人斯, 心似涌泉, 恣睢豸以貪饕兮, 洵欲海之無津, 反有俱存之慶兮, 冒白日以驕人. 天胡使我, 早紆何怙之憾. 彼何人斯, 行駢鬼蜮, 外雖寬而內深兮, 幽毒弩以潛射, 反有無故之樂兮, 裕飲食以望腹. 天胡使我, 忙隕哭昆之淚. 有人於此, 圯族而傷類, 鵠原不見其急難兮, 葛藟徒聞其終遠, 安富尊榮兮, 能育胞胎之蔓. 天胡使我, 頻因東野之厄. 有人於此, 穢義鱗德, 患失之靡所不至兮, 紛兇臂以奪食, 戴冠曳履兮, 能享偕老之福. 天胡使我, 忽鼓子休之盆. 信蒼高之難謹兮, 中閱瞽而煩冤. 吉與凶固不自謀兮, 又何必問夫鄭詹. 塊獨處而無聊兮, 百憂芸芸其來添.”

로부터 배운 울곧음으로 인해 시비가 옳게 가려지지 않는 세상과는 어긋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개탄하며 그에 대한 울분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다.

다음은 작품의 마지막 부분으로 ‘아, 슬프도다’를 반복적으로 연발하며 격한 어조와 호흡으로 자신의 비통함을 강조하고 있다.

어머니 계시나 아버지 계시지 않으니 이 몸 매우 외롭구나. 아, 슬프도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형이 있건만 나만 없구나! 아, 슬프도다!
 세 아이가 모두 저승으로 가고 무덤 온통 황폐해졌다네. 아, 슬프도다!
 아내도 뒤따라 죽었으니 이제 부를 수조차 없구나. 아, 슬프도다!
 내 죄가 도대체 무엇이길래 이런 우환을 당하는가? 아, 슬프도다!²⁶⁾

이미 서술한 가족과의 사별을 차례로 다시 한 번 열거하며 슬픔의 극한에 달한 자신의 심정을 전달하고 있다. 각각의 경우마다 끝에 ‘噫’라는 탄식을 반복적으로 둔 것은 자신의 비통함이 그만큼 절실함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것처럼 訥齋는 삶 속에서 경험한 비참한 일들에 대해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그 경험에서 비롯되는 자신의 격정적인 감정을 직설적으로 토로하되, 그러한 상황과 유사한 故事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悲哀와 鬱憤의 감정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였다. 이처럼 이 작품은 擬作으로 지어진 賦작품임에도 불구하고 서정적 표현과 서사적 구조를 활용하여 訥齋 문학의 가장 큰 특성인 ‘感慨’와 ‘悲哀’의 激情²⁷⁾을 여실히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되고 있다.

26) 朴祥, 『訥齋集』 卷1, 「擬自悼賦」, p.467, “系曰, 有母無父, 身苦孤兮噫. 人皆有兄, 我獨無兮噫. 三兒登幽, 塚半蕪兮噫. 妻又繼逝, 不可呼兮噫. 我罪伊何, 罹此虞兮噫.”

27) 박은숙(『16세기 호남한시 연구』, 월인, 2004, p.159.)은 訥齋 문학의 감성적 특성을 ‘感慨’와 ‘沈鬱’로 평가될 만큼 激情的이고 悲哀에 차 있다고 하였다.

2) 「聞杜鵑」 - 抒情적 표현과 寓言의 운용

「聞杜鵑」은 두견새의 울음이라는 관용적인 비유를 통해 작자의 애절한 감회를 假託하고 있는 작품이다. 인간은 삶의 과정에서 각자 나름의 理想을 지니게 된다. 그러나 그것은 현실에서 자신이 바라는 대로 충족되기도 하고 혹은 실현되지 못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 개인은 절망, 좌절, 울분 등의 감정을 느끼게 되고, 그 감정들은 문학작품의 중요한 정서를 이룬다. 곧 失意한 개인은 문학작품을 통해 이루어지지 않은 혹은 앞으로도 실현될 수 없는 자신의 理想에 대해 안타까워하며, 자신의 理想과 괴리가 있는 현실의 상황에 대해 울분을 토로하게 되는 것이다. 「聞杜鵑」을 통해 개인이 자신의 理想과 현실과의 괴리를 느끼고 失意한 경우 유발되는 悲哀와 鬱憤의 감정이 賦작품 속에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작품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다음은 어느 날 밤새도록 우짖는 두견새 소리를 듣고 그 울음에 작자 자신의 비통한 마음을 담아내고 있는 부분이다.

서재 밖 울창한 숲 속에서 소쩍새 한바탕 울어 대니, 그 울음소리 슬픈 것이 밤새도록 그치지를 아니하네. 그 소리 정신을 빼놓기는 마치 늦은 봄날 蒼梧와 맑은 가을날 漢山에서 堯의 딸들이 얼굴 가리고 푸른 대에 눈물 흘뿌리고, 王昭君이 가슴 치며 대낮에 피눈물을 흘리고 운 것과 같다네. 아, 슬프다! 너의 소리는 사람을 감동시키는 힘이 갑절이나 되는구나. 劍閣 천리에서 초당의 杜甫 큰 절 하게 하고, 天津의 짧은 다리에서 하남의 邵雍 근심을 이끌었네. 하물며 꽃다운 규방에서야 남편 떠나보낸 아녀자의 情恨을 도발하고, 객사에서는 지친 나그네의 마음을 처댄다. 남쪽 지방 출신의 이 떠돌이 사나이, 仙人의 후학으로 黃庭經의 한 글자 잘못 읽어 속세 한 구석으로 귀양을 왔도다. 생애는 오그라들어 초라한 포의로 남았다네. 긴장한 팔뚝 펼쳐보지 못함을 통탄하여 牙琴을 타며 때를 기다리네. 열 손가락 무척이나 찬 것 비웃을 만하니, 달콤한 꿈에 빠져 이미 늦어버릴까 저어하네. 어찌하여 蜀帝의 냇이 되어서 거뜩거뜩 나그네의 마음을 격발시키느냐? 솟아나는 눈물 움켜쥐며 가슴 치는 것 그만둘 수 없구나.²⁸⁾

蒼梧에서 堯가 죽자 娥皇과 女英이 瀟湘에서 흘렸던 눈물과 漢山을 지나 嶠의 땅으로 들어가며 흘렸던 王昭君의 피눈물에 사람의 혼을 빼놓는 듯한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빗대어 그것의 처절함을 부각시켰다. 그리고 이어 그 소리가 그토록 애절하기에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힘도 그 어느 것보다 강함을 말하며 역사적으로 그러했던 경우들을 예시했다.

두견새는 고국 蜀나라로 돌아갈 수 없음을 통곡한 杜宇라는 왕의 녀이 환생한 것이라고 전해진다. 전설 속에서 두우는 죽어서라도 이승의 집에, 그리운 사람의 곁으로 돌아가고자 하지만 그런 바람을 현실에서는 도저히 이룰 수 없었다. 작자는 이러한 전설이 담긴 두견새를 통해 불운한 현실에서의 자신의 恨을 형상화한 것이다.

訥齋는 1515년(중종 10), 그의 나이 42세 때에 金淨과 함께 상소하여 愼氏의 복위를 청하고, 勳臣인 朴元宗·柳順汀·成希顔 등의 罪를 논척하다가 전라도 南平에 7개월 정도 유배되었다. 그리고 1519년 己卯士禍 이후 己卯士類로 지목되어 줄곧 外職으로 떠돌았다. 그의 불안하고 좌절된 삶은 이 작품에서 ‘謫塵方之一阨’, ‘生涯襤卷, 窄窄布衣’, ‘恫壯臂之未展兮’, ‘唉十指之頗冷兮’ 등으로 표현되었다. 이러한 삶의 역정을 거친 그이기에 처절한 두견새의 울음소리를 듣고 悲哀의 감정을 절실하게 느낀 것이다. 그러므로 그 소리에 솟구치는 눈물을 움켜쥐며 가슴 치는 것을 멈추기 어렵다고 하며, 거둬거둬 자신의 悲哀를 격동시키는 두견새를 닮아 한탄한 것이다.

위에 제시한 단락의 뒤에 이어지는 부분에서는 애처로운 두견을 위한

28) 朴祥, 『訥齋別集』(『韓國文集叢刊』 19를 텍스트로 삼았다.) 卷1, 「聞杜鵑」, p.82, “齋表叢林, 謝豹一聲, 其鳴也哀, 通夕不停. 恍如蒼梧春晚, 漢山秋晴, 帝子掩面兮, 灑楚雨於翠竹, 明妃拊膺兮, 泣青血於白日. 嗟爾之音, 感人則倍. 劍閣千里兮, 起草堂老杜之拜, 天津短橋兮, 引河南逸郢之憂. 況乎芳閨挑征婦之恨, 逆旅打倦客之愁. 吳儂浪士, 丹臺齋學, 誤黃庭之隻字, 謫塵方之一阨. 生涯襤卷, 窄窄布衣. 恫壯臂之未展兮, 拈牙琴而待期. 唉十指之頗冷兮, 嫌夢熟之已遲. 胡爲蜀魄, 重激羈心. 迸出掬淚, 標擗難禁.”

작자의 조언이 펼쳐진다.²⁹⁾ 가시 속에서 곤욕을 당하며 괴롭게 긴 밤을 우짚어 끊임없이 怨恨을 호소하지 말고, 이 봄날 빨리 봉새가 得意하여 노니는 세계로 날아가서 그 몸을 편안하게 하라고 권유한다. 두견에 대한 이 당부는 작자 자신의 처세관을 寓意한 것으로, 실제의 비극적 상황이 어떠한 간에 그 상황 속에 압도되지 않고 그곳에서 벗어나려 하는 작자의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聞杜鵑」은 4언을 위주로 한 짧은 편폭에 寓言을 운용하고 서정적 표현을 통해 주제를 형상화한 작품으로, 적절한 비유와 故事를 활용하여 두견새의 울음으로 촉발된 悲哀의 정서와 고달픈 삶 속에서 벗어나 안식을 찾게 되기를 희구하는 소망을 절실하게 전달하고 있다.

3) 「哀大鳥」 - 寓言의 운용, 敘事적 구조

「哀大鳥」는 작자가 1515년(中宗 10)에 「請復故妃愼氏疏」에 연루되어 유배생활을 하면서 창작한 것으로, 모양과 소리가 빼어난 특이한 새가 포획당하는 상황을 假設하여 뛰어난 능력을 가진 자가 참조의 대상이 되는 세대를 풍자한 작품이다.

노나라 은거지인 菟裘 서쪽에 소나무 높이 솟아 있는데 어떤 새 날아들어 등 우리 틀고 새끼 셋을 낳았네. 처음에는 노랑주둥이로 바스락거리다가 마침내 눈 같은 깃털로 날기를 익히네. 처음에는 한발 가량 퍼덕이다가 홀연히 까마득한 곳으로 날아가려 하네. 생김새 아리따워 볼 만하고 소리는 맑아 듣기가 좋네. 기러기와 고니조차도 사귀지 않았는데 어찌 제비와 참새와 한 무리를 이루겠는가. 낮에는 들판에서 쪼아 먹고 밤에는 본래의 수풀에서 묵네. 짝지은 오리가 오가는 것과 같고 모래벌판 갈매기가 뜨고 가라앉는 것과는 다르네. 눈 같은

29) 朴祥, 『訥齋別集』 卷1, 「聞杜鵑」, p.82, “乃爲之告曰, 高岡有桐, 彩鳳嚶嚶. 鴻漸于陸, 僊僊順風. 啄琅玕兮厭稻粱, 何飛止之得得. 渠獨異矣, 困於枳棘. 苦叫永宵, 訢怨罔極. 桂枝蔥蒨, 盎盎長春. 閉口疾逝, 可以安汝之身.”

흰 깃털을 예뻐하여 아침저녁으로 나가 보고 동자에게 일러 털을 놓지 못하게 했네. 긴장한 날개를 자랑하여 매이지 않고 밝은 마음을 품고 유유자적하네. 너의 힘 있고 기상 높음을 사랑하여 너를 靑田山의 신성한 학에 비기노라.³⁰⁾

靑田山의 신성한 학처럼 소리와 모양새가 아름답고 그 기질 또한 고고한 大鳥는 작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인간상을 가탁한 것이다. 그러므로 작품의 도입부에서 大鳥의 범상치 않은 자태에 대해 묘사하고, 그에 대한 작자의 흥미를 표현하였다. 寓言은 제재에 假託하여 주제를 전달하는 방법이므로 題材가 되는 大鳥의 속성과 행위에 대해 매우 섬세한 부분까지 포착하여 세밀하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생동감 있게 표현한 것이다.

이어서 작자가 애지중지하던 大鳥가 어느 날 죽음에 이른 상황이 전개된다.

어찌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늙지대에서 마구 노닐었느냐? 동산지기는 털을 설치하고 그 갇혀 있는 것을 잡을 줄 아는 법. 동자가 놀라 “큰 새가 잡혀 다투어 손을 대어 털을 뽑아 흰 깃털에 붉은 피가 물들었다”고 알리네. 내가 큰새의 모든 날개가 부러진 것을 돌아보며 높은 하늘을 향해 슬픔을 머금고 있다가, “큰 새여, 어찌하여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외치고, 곧바로 하인을 시켜 가서 위급함을 해결하고 사람들을 꾸짖고 큰 새를 가지고 와서 뜰 안에서 기르게 했다네. 새는 깃털이 모두 망가져 흐느끼며 울음을 삼키고 있네. 가을바람을 등지고 비틀거리면서 배고픔을 참아내며 쪼아 먹기를 멈추고 있네. 어찌 알았으랴, 만 리를 나는 새가 갑자기 두 손에 잡힌 것을 보게 될 줄을. 하늘의 소행인가, 사람의 소행인가? 큰 새여, 너는 어찌 그리 어리석은가? 자루그물, 주살, 큰 그물, 작은 그물을 갖추어 놓고 그물 곁에서 기다리는데 너는 스스로 가서 걸렸으니 내가 도대체 누구를 탓하겠는가?³¹⁾

30) 朴祥, 『訥齋別集』卷1, 「哀大鳥」, p.79, “菟裘之西, 蒼髯高峙. 有鳥來巢, 邠化三子. 始黃口之穀救, 終雪衣之習飛. 初若翮於尋丈. 忽欲凌乎希夷, 狀窈窕而可觀. 聲瀏澗而宜聞. 背鴻鵠而不伴, 豈燕雀之爲群. 晝啄平蕪, 夜宿舊林. 同雙鳧之往來, 異沙鷗之浮沈. 我憐衣雪, 朝夕出看. 乃命童子, 以戒機關. 詎健翼之無羈, 抱明心而自適. 吾愛爾之軒昂, 擬靑田之神鶴.”

大鳥가 뒷에 걸려서 그 아름다운 깃털을 다 뽑히고 피가 맺힌 모습에 대해 ‘새는 깃털이 모두 망가져 흐느끼며 울음을 삼키고 있네. 가을바람을 등지고 비틀거리면서 배고픔을 참아내며 쪼아 먹기를 멈추고 있네.’라고 사실적으로 형상화하고, 그 처참한 몰골을 바라보는 작자의 슬픈 심정을 표현하였다. 이러한 참혹한 일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지는 하나 결국 大鳥 스스로 여러 종류의 그물과 주살 따위를 경계하지 않은 데서 연유한 재앙이므로, 그 누구도 탓할 수 없고 스스로를 제대로 보존하지 못한 大鳥의 어리석음에 대해 한탄할 수밖에 없다는 언급을 통해 주제에 접근해 간다. 이처럼 寓言을 운용한 작품에는 虛構的 또는 實在的인 逸話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逸話를 담아내는 데에는 주로 敘事的인 서술방법이 쓰이고, 그러한 서사적인 서술이 읽는 이로 하여금 허구의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느끼게 하여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더욱 절실하게 받아들이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어지는 단락에서 작자는 大鳥에게 보잘 것 없는 메추라기가 되어 부질없이 살진 먹이만을 탐하다가 오늘처럼 치욕을 당한다면 봉새에게 부끄러운 일이 됨을 명심하라고 당부하며 현명한 처신 방법에 대해 조언을 한다.

너는 듣지 못했는가, 봉래산이 바다 위 온통 푸른 곳에 솟아 있는 것을. 그 곳은 인간의 간교한 일이 끊어지고 네모 병 속[仙境]의 풍경이 담담하구나. 그 곳에서는 琅玕과 肉芝로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으니, 아! 큰 새여, 너는 어찌 그 곳으로 돌아가지 않느냐? 곤륜산의 신선이 사는 곳에는 밝은 달 걸린 오동나무 있으니 세상의 그물이 이르지 않고 다만 신선의 발자취만 보일 뿐이네. 그 곳에

31) 朴祥, 『訥齋別集』卷1, 「哀大鳥」, p.79, “如何不懼, 浪遊澤國. 虞人備機, 知撮偏塞. 童子驚告, 大鳥被攫. 爭觸手而拔毛, 染紅血於縞衣. 顧六翮之已摧, 向九霄而含悲. 余謂大鳥, 何至此極. 卽呼蒼頭, 往救其急. 叱咤取來, 畜我中庭. 羽毛雕盡, 嗚咽吞聲. 背秋風而蹭蹬, 堪忍飢而休啄. 安知萬里之禽, 遽見兩手之得. 天耶人耶, 爾鳥何愚. 畢戈網羅, 旁羅以候. 爾自就羅, 余又誰尤.”

서는 천화와 옥매를 먹을 수 있으니 아! 너, 이 큰 새여, 너는 어찌 그 곳으로 가지 않느냐? 또 듣지 못했는가, 세찬 바람 부는 세상이 하늘에서 한 주먹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을. 신령한 새가 노닐며 그 기력을 기르고 있으니 비록 주살이 있다고 해도 오히려 어디에 쓰겠는가? 아! 너, 큰 새여, 너는 어찌하여 그 곳으로 가지 않느냐? 대붕은 남쪽으로 가려고 양빨 같은 회오리바람을 일으켜 바람을 타고 만리로 날아 여섯 달에 한 번 쉬네. 느릅나무를 치받는 메추라기가 대붕을 우러러 본들 어찌 미치지겠는가? 아! 너 큰 새여, 너는 어찌 봉새처럼 하지 않는가? 부질없이 살진 먹이 바라다가 재앙을 사니 봉새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느냐?³²⁾

앞 단락의 서사적인 서술에 이어서 大鳥에 대한 작자의 조언이 매우 구체적으로 전개된다. 인간의 간교한 일이 끊어지고 세상의 그물이 이르지 않는 곳에서 우아하게 살 것을 권유하고, 봉새가 노닐면서 기력을 기르고 있어서 비록 주살이 있다고 해도 아무런 쓸모가 없는 세계로 훨훨 날아갈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 논지를 전개하는 과정에서 읽는 이가 작자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에 공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예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에 이어 쓸모 있는 사물이 해를 입게 됨을 여러 예를 들어 부연하고, 大鳥가 재앙을 입을 수밖에 없었던 것에 대해 설명하여 주제를 밝힌다.³³⁾ 쓸모가 있고 아름다움을 지니면 그에 따르는 재앙이 있

32) 朴祥, 『訥齋別集』 卷1, 「哀大鳥」, p.79, “爾不聞蓬萊千仞, 海上一碧. 絕人間之機事, 淡方壺之風月. 琅玕肉芝, 可以療飢. 嗟爾大鳥, 爾胡不歸. 崑崙玄圃, 閨月梧桐. 世網不到, 但見靈蹤. 天禾玉梅, 可以得啜. 嗟爾大鳥, 爾胡不適. 又不聞剛風世界, 去天一握. 神雀逍遙, 養其氣力. 雖有繒繳, 尙安得施. 嗟爾大鳥, 爾胡不之. 大鵬圖南, 扶搖羊角. 萬里凌風, 六月一息. 檜榆斥鷃, 仰見奚及. 嗟爾大鳥, 爾胡不若. 謾要肥而賈禍兮, 得無愧於鸞鷲.”

33) 朴祥, 『訥齋別集』 卷1, 「哀大鳥」, p.79, “卷道德於覆巢之邦, 乃喆人之炳幾. 爾既有羽毛之美, 胡不卷而避機. 噫匹夫無罪, 懷璧其罪. 物之有材, 禍之所會. 蚌之剖兮以珠, 桂之伐兮以食. 籠鸚鵡者以語, 鞞鷹隼者以搏. 苟自安於不材, 庶可終乎天年. 櫟社老而免斧, 鷦鷯小而能全. 天胡畀汝以美質, 又胡不與其所安. 然則乃何, 吾將處乎材與不材之間.”

기 마련이니, 기미를 잘 살피 그것이 제대로 쓰이거나 발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잘 감추어 두는 것이 현명한 일이라는 것이다. 大鳥가 죽음을 맞게 된 것도 그 아름다움 때문이니 작자 자신은 그것을 교훈 삼아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사이에 머무르며 신변의 안전을 피할 것을 다짐한다.

이상에서 살핀 대로 이 작품은 제재[大鳥]의 속성과 모양에 대한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 상황 전개에 대한 세밀하고 생동적인 묘사, 돌발적인 사건을 대하는 작자의 절박한 심정에 대한 섬세하고도 솔직한 표현, 논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기 위한 적절한 故事의 인용, 논지를 강조하기 위한 敷衍 서술 등의 修辭를 통해 주제를 형상화하고 있다.

4) 「夢遊」 - 敘事적 구조, 抒情적 표현, 議論적 전개

「夢遊」는 訥齋가 어느 눈 내리는 겨울날 낮잠 속에서 경험한 일을 서사적 구조 속에 엮어낸 작품으로, 조선전기 夢遊 계열 賦작품들에서 보편적으로 살필 수 있는 入夢 - 夢中世界 - 覺夢의 구성을 갖추고 있다.³⁴⁾

入夢 단계에서는 현재 처벌을 기다리며 속박되어 있는 상황에 대한 訥齋 자신의 슬픔과 세월이 덧없이 흘러감에 대한 한탄을 토로하고, 그러한 상황에서 술을 마시다가 잠이 들어버리는 과정³⁵⁾에 대해 서술하고 있다.

이어지는 夢中 世界에 대한 서술부분에서는 중국 上古의 伏羲氏로부

34) 「夢遊」 외에 訥齋 賦작품 가운데 夢遊의 구조를 띠는 작품으로 「五絃琴」과 「石鼓」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작품은 入夢의 과정이 생략되어 있다.

35) 朴祥, 『訥齋別集』 卷1, 「夢遊」, p.73, “余埃罪于支城兮, 秋又變而爲冬. 感時序之推謝兮, 悲束縛於棘叢. 俄再撫乎四海兮, 懷輪囷之未攄. 酌愁魔以羔兒兮, 揮堆案之文書. 臘景入余廳事兮, 冬梅忽其返魂. 對曜君以索笑兮, 平朝及乎黃昏. 滕六屑其瓊白兮, 恣陰官之桀酷. 浪自甘於黑酣兮, 羌孰周而孰蝶. 羽鞞減以遐徂兮, 至無名而無迹.” 기존의 연구들에서는 이 작품을 訥齋가 충주목사로 있을 때에 창작한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 당시 南袞이 訥齋를 비롯한 己卯士類들에 대한 論斥을 주장한 疏狀을 올린 상황이라고 하였다.

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각 왕조의 興亡盛衰에 대해 시대 순서대로 서술하고 있다. 이 부분이 몽유 계열 다른 賦작품의 몽중 세계와 차별되는 점은 仙界에서 펼쳐지는 이야기가 아니라 중국 역대 왕조의 흥망성쇠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을 서술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선전기 夢遊 계열의 賦작품은 현실에서 失志한 작자가 꿈속의 仙界에서 神仙 혹은 道人을 만나 그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고민을 해결하고 큰 깨달음을 얻게 되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夢遊 혹은 遊仙의 서사 구조는 작가들이 현실에서 직접적으로 토로하기 어려운 자신의 고뇌와 생각을 간접적으로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곧 夢遊遊仙의 서사적인 서술 방법으로 꿈속 세계와 仙界를 그리는 가운데에 암울한 현실에서 벗어나고픈 자신의 의지와 자신이 현실에서 꿈꾸는 이상세계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 서사 구조에서 보이는 꿈의 공간과 仙界는 비현실적 공간이면서 동시에 작자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이상적인 공간이 된다.³⁶⁾

그러나 訥齋의 「夢遊」에서는 몽중 세계가 仙界가 아닌 역사적 실제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三皇五帝로부터 명나라에 이르기까지 왕조의 건립과 멸망을 주축으로 이야기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제왕들의 治積과 失政, 그리고 흥망성쇠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던 인물들에 대한 평가 등을 통해 春秋大義에 입각한 訥齋 자신의 역사관을 담고 있다. 아울러 역사적 사실과 함께 풍부한 고사를 제시하여 자칫 단조로울 수 있는 서사적 구조의 단점을 극복하고 있다.

夢遊 구조의 작품에서 夢遊者가 깨달음을 얻게 되는 계기는 문답 과정을 통해서이다. 대부분의 몽유 계열 작품들은 主와 客의 문답을 설정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이때 묻고 대답하는 주체는 주로 客으로 표현되

36) 이에 반해 동시기에 창작된 몽유록에서의 몽유 공간의 성격은 지극히 현실적이라고 할 수 있다. 작가가 처한 역사 현실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민감한 역사적 사건이나 인물들이 몽유 공간에서 문제가 되고 논란거리로 부각되기 때문에 몽유 공간은 지극히 현실적인 맥락으로 이해된다.(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서, 2005, pp.43-47.)

는 작자 자신과 大人·仙人·神君 등으로 표현되는 主이다. 여기에서 客의 질문에 답을 해주는 인물은 창작 주체의 고민과 갈등을 해결해 주는 인물들이기 때문에 夢遊 공간 또는 仙界에서 이루어진 두 사람의 대화는 창작 주체의 사유와 작품의 주제를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곧 客의 질문을 통해 창작 주체의 갈등을 자연스럽게 토로하고 그에 대한 상대의 대답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면서 작품의 주제를 형상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질문을 통해 독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대답을 통해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지를 보다 명확하게 밝힐 수 있는 대화체 운용의 장점을 활용하는 것이다.³⁷⁾

訥齋의 「夢遊」에 설정된 문답의 형식도 유사한 기능을 한다. 그러나 특이한 점은 이 문답이 夢中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覺夢 후에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訥齋는 꿈에서 깨어난 후 꿈속의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어서 거북점을 쳐보나 점괘가 제대로 나오지 않자 굴원이 「天問」에서 하늘을 향해 울부짖으며 질문을 던지듯 神君을 향해 물음을 던진다.³⁸⁾

神君은 나에게 달통한 뜻 일러주니, 삶과 죽음을 하나처럼 여기라 하네. 그리고는 말하길, “혼돈이 처음 뚫릴 때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몇 겁이나 되었는가? 그동안 어지럽게 엮혔던 興亡과 治亂은 한바탕 허깨비 꿈에 지나지 않는다네. 그렇다면 꿈속의 浮沈은 다 조화의 거짓된 희롱으로 귀결되는 것이라네. 어찌하여 國君이니 牧民官 따위에 마음을 얽어매 놓고 쓸쓸하게 지치고 병들었는데도 그치지 않는 건가? 하찮은 세상의 毀譽는 마치 모기가 시끄럽게 귀를 스

37) 대화체는 일방적인 설명문보다 좀 더 직접적이고 사실처럼 느끼게 하므로 이야기의 현장감과 현실감을 더해주고 효과적인 논리 전개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문답 형식의 설정은 漢賦의 중요한 양식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다.

38) 朴祥, 『訥齋別集』 卷1, 「夢遊」, p.76, “形驟開而驚悟兮, 風疏銜乎弦月. 微槐安之弔詭兮, 此尤奇而難詰. 方其夢也不知其夢兮, 自以爲歷世變而獨立. 覺而後知其夢兮, 千百年便爲炊黍之頃刻. 神惘惘而若有亡兮, 假玄龜而推吉. 玄龜閉兆而不言兮, 向太虛而哭叫. 太虛夢夢而無聲臭兮, 嚮神君而一叩.”

처가는 소리와 같다네. 그대는 마땅히 세월 따라 지내며, 평생을 소요하게나.” 하였네.³⁹⁾

작품 속에는 訥齋의 질문이 직접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神君의 대답을 통해 그 질문의 내용을 헤아려보면 아마도 그것은 인간 세상에서 역사적으로 반복되는 浮沈의 문제, 개인의 榮落의 문제, 인력으로는 주관할 수 없는 生死의 문제 등이 모두 포함된 것이다. 그러한 근원적인 문제에 대한 神君의 답은 결국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逍遙하라는 것이다. 이러한 神君의 말을 訥齋는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인간 세상의 得失이란 결국 모두 헛된 것이며 천고의 세월도 한바탕 꿈에 불과한 것이니 『莊子』에 나오는 봉새처럼 逍遙遊의 경지를 지향하겠다고 한다.⁴⁰⁾

이처럼 「夢遊」에서 夢遊者는 訥齋 자신이고, 訥齋와 대화를 나누는 대상은 ‘神君’이라고 표현된, 道를 터득한 범상하지 않은 인물이다. 그리고 둘 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은 夢遊者인 訥齋가 토로하는 고민에 대해 상대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이 대화는 궁극적으로 訥齋의 정신적 깨달음에 관한 것이고, 이 과정에서 작품의 주제가 분명하게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⁴¹⁾

39) 朴祥, 『訥齋別集』卷1, 「夢遊」, p.76, “神君諭我以達義兮, 等死生於一轍. 曰自混沌之初竅兮, 迄至今其幾劫. 其間興亡理亂之紛紜兮, 不過爲一場之幻夢. 然則夢中之浮沈兮, 盡歸造化之假弄. 胡撓心於君牧兮, 蕭然疲疫之不止. 區區世上之毀譽兮, 驟若蚊雷之過耳. 子宜緣時月而爲經兮, 聊須盡以逍遙.”

40) 朴祥, 『訥齋別集』卷1, 「夢遊」, p.76, “承危言而服膺兮, 齊得失於鹿蕉. 置縵窻之多機兮, 將時適乎去來. 又焉知彭殤之壽夭兮, 毫山之大小也哉. 合千古爲一夢兮, 胸中含乎九垓. 分禍福於地羽兮, 笑千載之辛. 掃鴨堂而端坐兮, 誦蒙莊之首篇. 視萬物猶野馬塵埃兮, 遊心乎鵬背之青天.”

41) 이 작품의 주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에서 각기 다른 견해를 보인다. 신태영(앞의 논문, pp.213-214.)은 이 작품에 대해 訥齋가 유가적 학문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고뇌를 莊子의 사유를 통해 극복해 보고자 하는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였고, 김동하(앞의 논문, pp.87-89.)는 訥齋의 유교적 절의관에 기초한 역사의식을 담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였다.

IV. 訥齋 賦작품의 의미

이상에서 주제를 형상화하는 주된 서술방식을 중심으로 訥齋 賦작품이 지니는 문학성을 살펴보았다. 서정적 표현, 서사적 구조, 의론적 전개, 우언의 운용 등을 한 작품 속에 혼용하여 訥齋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를 효과적으로 형상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제 訥齋 賦작품이 조선전기 賦문학 전개에서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韓國 賦는 科擧 제도와 매우 긴밀한 관계 속에서 발달해 갔다. 그러므로 현전하는 작품 가운데 과거제가 시행된 이래 應試의 필요에 의해 지어진 작품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 그러나 韓國 賦의 전개 양상에서 주목할 것은 그러한 발달 과정 속에서도 창작 주체의 개인적 창작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점이다. 곧 창작 주체가 賦라는 양식을 통해 개인의 情感을 진솔하게 담아내어 순수 창작으로의 면모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賦작품은 문학성이 결여되었다는 이제까지의 보편적인 인식에서 벗어나 새로운 시각으로 賦의 문학성을 究明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

訥齋가 생존했던 15-16세기에는 양적으로 많은 賦작품들이 창작되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 있어서도 다양한 면모를 보여준다. 우선 체제의 측면에서 그 전개 양상을 살펴보면 이 시기 科擧에서 요구하는 체제는 高麗 穆宗 이래 채택되었던 古賦이다. 이 영향으로 이 시기에 창작된 작품들은 文賦의 체제도 종종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古賦 양식이다. 아울러 16세기 후반부터 科賦의 체제로 고착화된 六言, 혹은 四六言의 형식의 작품들도 창작되었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科賦 이외의 순수한 동기에 의해 창작된 작품이 이 이후의 시기와 비교할 때 훨씬 많다는 점이다.

이 시기 賦의 내용적 특징으로 언급할 수 있는 것은 주제의 다양화이다. 현실모순에 대한 고발과 풍자, 지배층 내부의 대립과 갈등으로 인한 개인의 慷慨·鬱憤 등의 정조, 일상에서의 哀悼의 情恨, 道家的 超越과 遊仙의 追求 등 이전 시기보다 훨씬 다채로운 양상을 띤다. 이러한 주제의 다양성은 이제까지 한문학사에서의 평가와는 달리 이 시기에 창작된 賦작품에서 보다 다양한 인간 정서의 표출을 확인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訥齋 賦작품은 그가 생존했던 시기의 이러한 賦 창작경향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訥齋 賦작품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과 검토는 그러한 창작경향을 실증적으로 밝힐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參考 文獻>

- 朴 祥, 『訥齋集』, 『韓國文集叢刊』 18, 民族文化推進黨.
- 司馬遷, 「屈原賈生列傳」, 『史記』
- 李濟臣, 「清江先生詩話」, 『清江先生鯁鯁瑣語』
- 許 筠, 「惺叟詩話」, 『惺所覆瓿稿』, 『韓國文集叢刊』 74, 民族文化推進黨.
『弘齋全書』
- 김동하, 「訥齋 朴祥의 賦 研究」, 『古詩歌研究』 26집, 한국고시가문학회, 2010.
- 金銀洙, 「訥齋 賦文學의 研究」, 『訥齋 朴祥의 文學과 義理 精神』, 광주직할시, 1993.
- 김정녀, 『조선후기 몽유록의 구도와 전개』, 보고사, 2005.
- 김진경, 「韓國 辭賦에 나타나는 悲哀의 情緒-조선시대 창작된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여」, 『동방한문학』 30집, 동방한문학회, 2006.
- 박은숙, 『16세기 호남한시 연구』, 월인, 2004.
- 신태영, 「訥齋 朴祥의 賦 研究-유가적 충의와 장자적 초탈」, 『은지논총』 17집, 은지학회, 2007.
- 安秉尙, 「先秦寓言의 特質」, 『語文學』 3집, 국민대학교 語文學研究所, 1984.
- 양승민, 「寓言의 서술방식과 소동적 의미」, 고려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 윤승준, 『動物寓言의 傳統과 寓話小說』, 月印, 1999.
- 尹柱弼, 「楚辭收容의 文學적 전개와 비판적 역사의식」, 『한국한문학연구』 9·10집, 한국한문학회, 1987.
- 尹柱弼외,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집문당, 2004.
- 尹海玉, 『朝鮮時代 寓言 寓話小說 研究』, 박이정, 1997.
- 陳蒲淸 著·오수형 譯, 『중국의 우언문학사』, 소나무, 1994.
- 陳必祥지음·沈慶昊 옮김, 『한문문체론』, 이회, 1995.

Abstract

*A Study on Nuljae(訥齋) Park Sang(朴祥) 's Fu literature - Focusing on the descriptive methods for expression of themes / Kim Jin Kyung**

Nuljae Park Sang(1474-1530) was extolled as the founder of the poetical arena of Honam because of his high level of literary achievement. He left 12 Fu works in various forms and contents. Nuljae put his desperate emotion resulted from his frustrating life into his Fu works with various features. Hence, close examination of the Fu works of Nuljae may provide a solid base for sound and fair understanding of his purpose and literary world.

In this regard, the present manuscript attempts to appreciate the literary value of Nuljae 's Fu works via investigation of descriptive methods utilized in expressing his themes. This research method is expected to identify how Nuljae 's desperate feelings are expressed in his literary works. In addition, it may establish the foundation to understand more specifically the literary value of Fu through individual Fu work pieces.

In order to express his themes in Fu works, Nuljae used the following descriptive methods: lyricism, epic structures, argument and allegory. Usually he used these four methods together for an individual Fu work. His works with more literary value are found to have the excellent harmony of these four descriptive methods. Nuljae 's harmonious use of various descriptive methods made his Fu works enjoy higher quality than any other writers' Fu works regardless of times. This is considered to be originated from the outstanding literary capability of Nuljae.

In addition, the present manuscript investigated the meaning of Nuljae 's Fu

* Research Professor, Chinese Rentier Institute, Korea University
/ yeshanmoon@hanmail.net

works in the development process of Fu literature during the 1400s-1500s. The Fu works from the 1400s-1500s are very similar to those of Nuljae's in terms of variety in forms and contents. The themes of Fu works in particular are more diverse than ever. They include accusations of and satire on contradictions of reality, affect such as exasperation and indignation due to the internal conflicts of the ruling class, condolence in everyday life, pursuit of 遊仙 and so on. This trend of Fu works in Nuljae's life time is fully reflected in his Fu works. Therefore, specific analysis and examination of Nuljae's Fu works should be considered as a good example of identifying empirically this writing trend of the 1400s-1500s.

【Key words】 Nuljae Park Sang, Fu literature, descriptive method, lyricism, epic structures, argument, allegory

투고일 : 4월 30일, 심사일 : 6월 3일, 게재확정일 : 6월 14일